



“석굴암 본존불은 항마석가불상”

문명대 교수 ‘토함산 석굴’

의 소의경전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방광대장엄경> 등에 근거하고 있는 석가팔상도로, 깨달음 때의 일시적이고 소승적인 항마성도상이라고 언급해 왔다.

문교수에 따르면 석굴암은 전세와 현재 의 부모를 기리고 또 의적으로부터 국가의 평안을 염원하는 데에서 조성했다는 <삼국유사> 등 문헌의 기록들은 <관불삼매해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된다고 한다. 특히 불상의 방향과 크기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 문교수는 이 책에서, 신라시대 고승 현장·법현 스님 등이 인도와 간다라 지역을 순례하고 남긴 <대당서역기> 등의 문헌에서 당시 신라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카불 부근의 나전하라 석굴의 본존불에 대한 도상학적 특징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기록을 토대로, “신라인들은 토함산 석굴을 통해 나전하라 본존불을 재현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나전하라 석굴의 본존불 역시 <관불삼매해경>의 도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은 간다라 지역인 파키스탄의 스와트 북카라 제2사원 석굴에서 토함산 석굴의 원형을 찾고 있다. 북카라 제2사원

지는 흉산을 필단하고 작은 전석(佛石)으로 쌓은 축조 석굴로, 커다란 판석으로 축조한 석굴암 석굴과 건축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교수는 “돌을 쌓아 만든 석굴은 간다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서역과 중국 그리고 신라로 전파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층목조전실 가능성

또 이 책은 석굴의 외부 구조가 현재와 같이 다층목조전실이 아닌 2층 이상의 ‘다층목조전실’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석굴암보다 조성시기가 앞선 중국의 돈황·운강·용문석굴 등에는 모두 2층 이상의 목조전실이 있다.

408쪽 분량으로 엮인 이 책은 토함산 석굴 관련 학술 논문 이외에도 3년간 촬영한 토함산 석굴 컬러 도판 150장과 실측도면 46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토함산 석굴과 불상군에 대한 완전한 원색 도판과 3구의 석불상에 대한 정밀한 실측도면을 갖춘 경우 석굴암에 관한 최초의 종합적 연구 저서로 크게 주목된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nia.com)



참나 만나는 깨달음이야기

우학스님 수필집 ‘산위의 눈뜬 물고기’

“깜깜한 밤에 산길을 나섰다. 나를 따라붙는 한 청년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사람이 무섭지 않게 되었다. 강래든, 도둑이든 말을 붙이면 좋은 친구다...”

(저자는 맨날 고기 묵고)를 퍼내 화제를 모았던 우학스님(영남불교대학 학장)이 ‘참나 만나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 <산위의 눈뜬 물고기>(해들누리)를 내놓았다.

불자들을 바른 삶과 신행의 길로 이끌고 있는 이 책은, 우학스님이 법회, 상담 등 수행과 포교의 현장에서 체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참나를 찾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아는 것은 남의 것이고 깨달은 것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에 불과한 것이다. 깨달은 것이야말로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며 “그 깨달음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지, 다시 시절(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우학스님의 <산위의 눈뜬 물고기>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고 자신의 거울을 닦아 참나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참으로 반가운 책이다. 값 7천원.

김종근 기자

정휴스님 전집 셋째권

‘깨친 사람을 찾아서’

만공·한암·용성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들에게 ‘관치생모(觀世生毛·알 이빨에 털난 소식을 아는가)’의 화두로 깨침을 인가받고 그들과의 법거랑을 통해 선종 진리의 한 획을 그었던 전강선사의 평전인 <깨친 사람을 찾아서>(우리출판사)가 정휴스님 전집 셋째권 권으로 출간됐다.

전강선사는 경허와 만공선사의 법맥을 전승한 선지식이었고 생사를 자재하는 선기를 지닌 대종장이었다. 누구나 선사 앞에 가면 범부는 성인이 되고 번뇌는 깨달음으로 변해 출신탈로를 얻어 주었으며, 미혹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자성을 통해 부처를 빚어내도록 한 지혜가 있었다고 회자되었던 선승이다. 전강선사는 우리에게 일생동안 바른 깨달음과 견해를 갖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게 그를 접해 본 후학과 문공스님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냉엄하면서도 화평과 방을 스님 특유의 선공으로 진작시켜 간직했고 이를 통해 후학들을 지도했다.

<깨친 사람을 찾아서-전강평전>은 전강선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법어를 통해 스님의 선과 수행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값 1만원. 김종근 기자



‘오색시리즈’ 완간한 구미래씨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

다섯 주제별로 엮은 장언집

“계승 등 짧막한 이야기를 통해 불법의 진수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최근 <지혜의 길>의 길을 이끄는 이야기와 <죽음의 재물 태우는 이야기>(한세)를 끝으로 다섯 권의 오색시리즈를 완간한 구미래씨(44·도사출판 한세 대표)는, 불사를 펴내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곧 수행이라는 점을 힘주어 말했다.

지난 98년 첫선을 보인 오색시리즈는 행복, 사랑, 수행, 지혜, 죽음이 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로 엮은

“행간마다 삶의 지혜 가득”

장언집이다. 이 시리즈가 주목을 받은 것은 행간에 숨어 있는 삶의 지혜이다. 뚜렷한 주제 없이 동서양의 우화들을 모아 엮은 기존 장언집이나 우화집과는 달리,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이야기에 담긴 참뜻을 풀어놓고 있다. 또 이야기마다 수록된 변상도(變相圖)도 이해의 폭을 넓게 해 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 경전의 교리적 의미를 한 쪽의 그림으로 요약·함축한 변상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경전의 세계로 친근하게 이끄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 구씨의 생각이다. 이 책에 실린 변상도는 고려·조선시대 목판 경전의 그림으로 이야기의 상황에 맞게 수록했다.

이 책의 출처도 방대하다. 이에 대해 구씨는 “우리 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일본 등 동양 여러 나라의 불교 경전과 고서에 기록된 내용, 스님들의 일화 등에서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새롭고 사색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구씨가 오색시리즈를 내게된 것은 선배의 권유로 <Zen Flesh, Zen Bones>를 번역하면서부터이다. 그는 ‘골선육선(骨禪肉禪)’이라는 제목으로 선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모아 엮은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선(禪)에 대한 남다른 시각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선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그중 하나. 구씨는 ‘선의 보편화’를 위해 92년부

터 불교경전과 고서의 번역본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수집한 교훈적인 이야기는 약 2천여 개. 이를 바탕으로 93년 <마음으로 보는 지혜>(책과 사람들)를 출간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그래서 구씨는 고민 끝에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 사랑, 수행, 지혜, 죽음’이라는 주제로 바꾸어 새롭게 출간했다. 그 책이 바로 오색시리즈 5권이 다. 최근에는 법보시용으로도 많이 찾는 정도로 호응이 좋다.

구씨는 “이야기들을 읽고 모으면서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경전 곳곳에 숨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어렵고 힘든 사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의 지침서가 될 것 같아 출간하게 됐다”고 오색시리즈 완간의 의미를 밝혔다. 값 각각 4천5백원. 김종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새로 나온 책

▲**떠나라, 그대 낯선 곳으로**(법현스님 지음, 들녘)= ‘별로 켜는 비누’로 잘 알려진 법현스님의 자전 에세이집. 아버지의 가솔로 동생들을 공부시키며 힘겨게 살아온 젊은 날의 이야기에서부터 출가한 사연에 이르기까지 스님의 인생 역정을 털어놓고 있다. 특히 농부의 겸손함, 고아가 가르쳐준 보시의 의미, 부식사에서 깨달은 자연에 대한 경의감 등은 진한 감동으로 다가 온다. 값 7천원.

▲**세포여행**(프랜브로 지음, 미콜프 그림, 한현숙 옮김, 승산)= 초등학교에서부터 노벨상 수상까지 모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만화 스타일의 책. 인체는 수백만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피부, 근육, 뼈를 만들어 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또 세균과 싸우기도 한다. 이 그림책은 그 많은 세포들이 단 하나의 세포에서 성장하여 결국은 사람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91년 코퍼스 과학 도서상 수상작. 값 4천5백원.

▲**시들지 않는 또 하나의 시간**(김주곤 시집, 새미)= 경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주곤 교수



▲**어머니의 LK(서든락 외 62인, 연꽃마을)**= 어머니! 여기에 더 어떤 수식어가 필요할까. 구구절절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대한불교진흥원 서든락 이사장을 비롯 시인 신경림, 국회의원 조성준씨, 성악가 엄정희 등 63인이 털어놓은 어머니에 대한 옛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 값 8천원.

▲**불사 및 기도 안내문 모음집**(살방연구원 엮음, 솔바람)= 대웅전, 극락전 등의 정각 건립에서부터 불상조성·종·탑·가사·단청·개금 불사에 대한 모연문이 총망라돼 있다. 부처님오신날, 우란분절, 성도·출가·열반제일 등 주요법회와 관련된 안내문도 수록돼 있어 요긴하다. 값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이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해버드에서 화제까지	현 각	열림원
2	김용옥 선생, 그전 아니올시다	변상섭	시공사
3	오두막 편지	법정	이레
4	금강경 강해	김용옥	통나무
5	오케이이야기	일타	효림
6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타	불교시대사
7	노자와 인생개(상)	김용옥	통나무
8	선생일기	지·허	여시아문
9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10	부처님께 재물 빌면	스티븐비벨	여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우리 가정에 꼭 있어야 할 책들입니다

남산스님의 숨겨진 민간요법과 놀라운 치료법



첨단 의학의 틈새를 파고드는 놀라운 민간 요법. 수천 년 전의 민간요법의 비밀이 담긴 책. 사상 체질을 쉽게 알아내는 법과 건강을 지키는 호흡법, 가정에 있어야 하는 상비요법 7가지 등 다채로운 내용을 쉽게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12,000원

좋은 인연 맺는 법

현대인의 마음을 열어주는 남산스님의 산중 에세이! 골리지도 말고 물리시지도 말고 좋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중도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 책 속에는 세상사 분별과 갈등이 없는 대자유인의 마음이 담겨있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소다가다 만난 인연 모두가 부처라네

‘파소요법’의 남산스님이 쓴 죽비같은 에세이! 한 스님의 좌충우돌로 맺어지는 인연의 아담법석. 이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 교만과 독선. 이기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든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자아를 찾아주는 삶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남산 스님 지음/ 신국판/7,500원

남산스님의 파소요법 비디오

파소 한 장으로 만병을 다스린다! 파소를 이용하여 자기 몸 속의 질병을 다스리는 21세기 대체의학. 각종 호흡기질환에서 부인과 질환까지 파소 한 장이면 ‘죽! 각종’ 남산스님의 파소요법’이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되었다. 판매가격: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 값 20,000원

* 관절염, 류머티스, 신경통,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는 남산스님께 연락 주시면 무료로 약을 보내드립니다. -방문사절, 전화상담- 0502)988-6565

도서출판 아카데미북 대표전화 3471-5008 팩스: 3471-6575 *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원혜 스님의 아름다운 생활수행

신국판/140쪽/값 5,000원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제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 처음으로 출가 발심할 때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라면, 첫사랑의 마음일 수도 있고 첫 아기의 미소를 바라볼 때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 처음 짚어 왔을 때, 처음 짚어서 마주쳤을 때의 당신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표정이 상대를 부처님의 품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환희함에 가득한 수행생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활수행> 중에서



<아름다운 생활수행>에는 원혜 스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간파하기 쉬운 ‘예절’, 특히 사찰 예절과 대중 화합 공동체 및 가정 생활 등에서 불자들이 갖춰야 할 삶의 자세를 예절로 풀어 놓았다. ‘예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을 묶는 것’이니 곧 수행의 연장이라는 원혜 스님의 예절론이 신선하다.

저자 원혜 스님은 미국에서 득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역임하고, 현재 봉은사 주지 소임중.

봉·은·출·판·부
전화 (02) 547-4255
팩스 (02) 516-6885